

Information
Service
정보서비스

TC동향보고서

TC 322

Technical Committee Trend Report

TC동향보고서

TC 322

Technical Committee Trend Report

Information
Service
정보서비스

I. 지속가능금융 분야 현황

- 1. 분야정의 2
- 2. 중요성 3
- 3. 주요 쟁점 4

II. 지속가능 분야 산업동향 및 분석

- 1. 시장 및 산업동향 5
- 2. 기술 발전 동향 11

III. 지속가능금융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 현황

- 1. 지속가능금융 분야 표준화 활동 현황 16
 - 가. TC 조직 구성
 - 나. TC/SC 의장, 간사, 컨비너 등 현황
 - 다. 한국 국제표준 전문가 참여현황
- 2. 분야별 표준개발 현황 18
 - 가. 해당 TC/SC 주요 표준 개발 현황
 - 나. 한국 주도 국제표준 개발 현황
 - 다. 해당 TC/SC 주요 이슈 및 동향

IV. 해당분야 국가표준 대응 활동 현황

- 1. COSD 조직 소개 21
- 2. 기술 또는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25
- 3. 2022년 COSD 제안 국가표준 리스트 26
- 4. 2022년 COSD 활동 성과 26

총괄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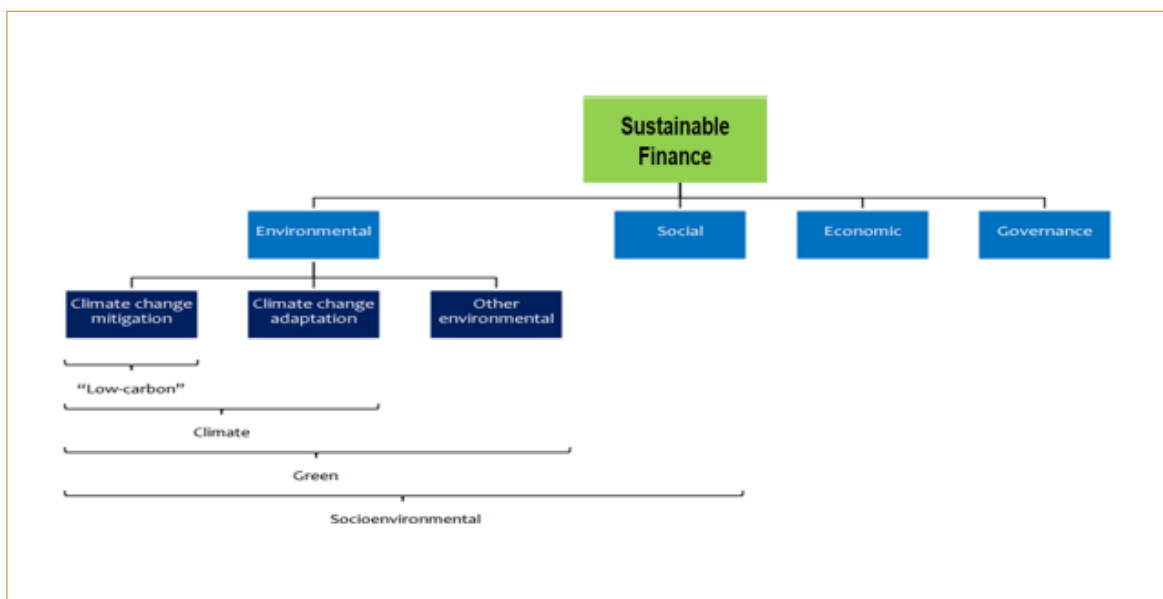
공순덕

실무담당자

남정현

1. 분야정의

- 지속가능금융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의 달성에 기여하는 자금 조달 및 관련 제도, 시장 장치이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환경 및 사회를 충분히 고려하는 과정으로, 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프로세스로도 정의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 적용으로도 이해된다.
- 지속가능금융은 흔히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비즈니스 결정, 경제 개발 및 투자 전략에 통합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다만, ESG 투자(책임투자)의 정의가 위험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라는 시각에서 투자 결정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중요 ESG 요소를 통합하는 전략 및 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지속가능금융과 ESG 투자가 표면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속가능금융은 ESG 관행을 포함하여 금융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더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지속가능금융 개요

- 지속가능금융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모두를 포함한다. 공통적으로 투자(채권 및 주식 포함), 은행, 대출, 보험, 대체위험이전, 중개, 실제 경제주체, 금융소비자, 거래소(주식, 채권, 선물, 파생 및 환경 관련 권리 등 포함), 중앙은행 및 규제당국과 같은 감독기구, 정부기구, 전문가 기구, 환경 및 사회 관련 NGO를 포함한다.

2. 중요성

-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사회적 도전은 세계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훼손과 자원의 고갈, 폐기물 축적과 빈곤, 인권, 도시화 문제 및 에너지와 보건에 대한 접근성은 경제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요구한다.
- 이해관계자의 금융에 대한 기대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의 전환에 따른 다양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 역시 인식이 필요하다.
-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EU 및 UN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 민간 투자자들은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5년에는 UN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되면서 국제적 공통의 관심사로 지속가능성이 떠올랐다. 특히 파리 기후 협정에는 경제와 금융의 흐름을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을 향한 경로와 일치시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 지속가능금융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기후 중립적이고 기후 탄력적이며 자원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지속가능금융은 투자가 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경제와 지속 가능한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 EU는 2021년 지속가능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관련 법안 패키지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활동의 정의를 위한 분류체계(Taxonomy), 지속가능투자 대상 선별을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 위험 평가 등에 관한 수탁자 의무, 투자 및 보험 자문에 있어서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도 고려,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한 투자상품 설계와 관련한 투자 및 보험 상품 감독 및 거버넌스 등에 관한 제안이다.
- 지속가능금융의 형태인 지속가능투자 역시 세계적으로 그 규모와 액수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지속가능투자는 운용자산규모와 비율이 연도별로 확대되고 있다.

[표 1] 글로벌 ESG 투자 비율 (%)

5개 지역 대상	2016	2018	2020
운용자산규모	81,948	91,828	98,416
지속가능투자 규모	22,839	30,683	35,301
지속가능투자 비율	27.9%	33.4%	35.9%

출처 : GSIA,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서 재인용

-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3대 연금금이 앞장서서 책임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일부에 대해 ESG 통합 및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ESG 주제에 관한 기업과의 대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에는 ESG 투자자산이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의 5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 주요 쟁점

- 지속가능금융은 그 정의가 불명확하며, 관련된 수많은 개념이 혼재하고 있다. 특히 그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 역시 서로의 이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는 혼란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인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일례로 실제 탄소배출이 저감되지 않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표방하는 경우 그린 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금융은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조직이 타 조직과 상이한 특징에 따라 어떻게 전사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합성 및 금융상품의 ESG 성과의 측정은 표준화되지 않아 각 기관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투명성 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시장 및 산업동향

가. 국내 시장 및 동향

- 국내의 시장에서는 대부분 ESG 투자와 SRI 채권, 지속가능성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SG 투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 이니셔티브가 확대되어 왔으며, 국민연금을 필두로 연기금의 사회적 투자규모 현황은 약 131조원에 이르고 있다.

[표 2] 연기금 사회적 투자규모 현황¹⁾

국민연금	130조 4천억 원
사학연금	4561억 원
공무원연금	3215억 원
합계	약 131조 원

- 연기금의 ESG 투자 외 사회책임투자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설정액은 2021년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 SRI 펀드 설정액 / 누적수익률²⁾

1) 한국거래소 ESG 포털.

2) 에프앤가이드.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채권 역시 늘어나, 2022년 8월 31일 기준, 1년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각각 약 2천 5백억 원에 이른다.

[표 3] 연기금 사회적 투자규모 현황³⁾

채권종류	거래량(백만원)	거래대금(백만원)	발행기관수	종목수
녹색채권	167,762.6	167,461.97	18	26
사회적채권	42,574.34	42,257.47	14	16
지속가능채권	38,585.02	38,582.73	14	16
전체	248,921.96	248,302.17	44	58

- 금융기관그룹의 지속가능금융채권 발행규모는 원화채권과 글로벌채권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원화채권은 2021년 중 15조 9,920억 원 순증하여 전년보다 11조 7,920억 원 (185.0%) 증가하였으며 글로벌채권 발행은 2021년 98.8억 달러로 전년보다 37.8억 달러 (62.0%)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기후리스크가 증가하면서 ESG 채권발행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2021년 중 금융그룹별 국내 지속가능금융채권 발행은 기업은행 6조 6,300억 원, KB금융 그룹 2조 4,100억 원 발행하였으며,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NH농협 등은 1조 원 이상 발행하였다. 또한 지방은행 그룹도 JB금융그룹이 1조 1,200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으며, DGB금융지주가 5,800억 원 발행하는 등 발행 첫해에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는 지속가능금융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 지속가능채권 발행의 경우 수출입은행 20.1억 달러, 산업은행 19.3억 달러, 하나금융그룹 14억 달러, KB금융그룹 13.9억 달러, 신한금융지주 13억 달러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

[표 4] 금융그룹별 지속가능채권 연도별 발행 현황⁵⁾

구분	국내 채권 (억 원)				글로벌 채권 (억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KB금융그룹		5,000	6,500	24,100	3.0	9.5	15.7	13.9
우리금융지주		3,000	7,500	10,500		6.5	2.7	7.5
신한금융지주	2,000	-1,000	5,000	14,500		14.7	12.4	13.0
하나금융그룹			5,000	11,650		6.0	1.5	14.0

3) 이상현, 지속가능금융의 의의와 통계 현황, 119면.

4) 이상현, 지속가능금융의 의의와 통계 현황, 119면.

5) 한국거래소 자료, 전계 논문 120면에서 재인용.

구분	국내 채권 (억 원)				글로벌 채권 (억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NH농협				11,270			5.0	6.0
기업은행		9,500	4,000	66,300	5.0		5.0	5.0
산업은행	6,000	2,000	13,000	26,000		5.6	5.0	19.3
수출입은행	3,500	-3,500			4.0		13.7	20.1
BNK금융그룹			1,000	2,000				
DGB금융지주				5,800				
JB금융그룹				11,200				
합계	11,500	15,000	42,000	159,920		12.0	42.3	98.8

○ SDGs를 고려한 공공조달 및 경제개발 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 주도의 금융 외에 국가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를 추진하여, 관계부처와 주관기관,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는 2021년 1월 3차 회의에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다음 12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관련사항을 추진하였다.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2] 민간금융 활성화	[3] 녹색금융인프라 장비
①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⑤ 「녹색분류체계」 마련	⑨ 기업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②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⑥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⑩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③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⑦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⑪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④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⑧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계획」 수립	⑫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그림 3] 녹색금융 추진계획 12개 세부과제⁶⁾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2021. 1. 25.

-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는 ESG 공시, 평가체계 구축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ESG 경영과의 연계 논의 등 녹색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ESG 분야로 관련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금융위·환경부 등은 녹색금융 세부과제의 실무작업을 위해 ① 금융리스크 평가·관리반(WG1), ② 녹색 투자 활성화반(WG2), ③ 기업공시 개선반(WG3)을 구성하여 2020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2022년도에 녹색금융 TF는 기후경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시범적용, 기후리스크 포럼 운영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녹색금융 핸드북 보완,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개정 및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을 발표할 것을 계획하였다.⁷⁾

나. 해외 시장 및 동향⁸⁾

- 2018.3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3대 목표 및 10대 실행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이 발표되었으며, EU는 이를 토대로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 강화, 녹색채권 표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5] EU 지속가능금융 10대 실행계획⁹⁾

구분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자본흐름 전환	① EU 녹색분류체계 수립
	② 녹색금융 표준 및 라벨 도입
	③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촉진
	④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금융자문 제공
	⑤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⑥ 신용평가 및 시장조사 시 지속가능성 고려
	⑦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의무에 지속가능성 포함
	⑧ 은행 및 보험사 대상 건전성 규정에 지속가능성 고려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 육성	⑨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규정 강화
	⑩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촉진 및 자본시장의 단기성과주의 지양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2021. 12. 8.

8) 장명화,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2022.

9)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2018)”, 전개 보고서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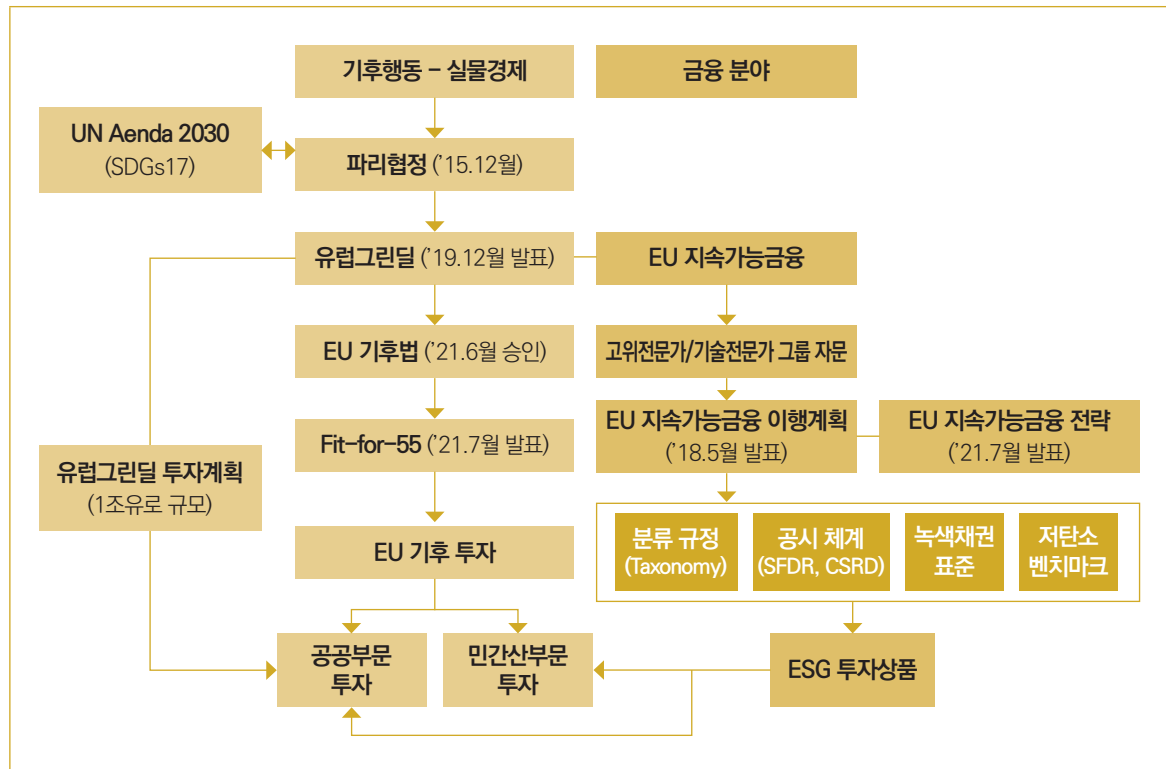
- EU는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수립(2018년) 이후 유럽 그린딜의 실천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 증가 등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2021.7월 지속가능금융 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진하고자,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과 TEG(Technical Expert Group) 자문 등을 기반으로 전환금융, 포용력, 복원력 및 금융시스템 기여, 분류체계의 국제화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표 6] EU 지속가능금융 전략¹⁰⁾

목표	주요 활동
실물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환금융	-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에 자금 지원
	- 전환노력 인정을 위한 EU 분류체계 프레임워크의 확장
	- EU 분류체계에 지속가능한 활동영역 추가
	- 지속가능한 재정 표준 및 레이블을 확장하여 전환 노력에 자금을 지원
보다 포용적인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조성	- 소매 투자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금융에 접근 기회 지원
	- 지속가능금융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후 및 환경 위험으로부터 보호
	- 사회적 분류에 대한 보고서 게시
금융시스템의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 : 이중중요성	- 지속가능성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계정을 장려하는 재무보고기준 도입
	-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에 ESG 위험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 은행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보험사의 건전성 프레임워크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고려
	-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을 모니터링 및 해결
	- 금융부문 규정에 대한 과학 기반 목표 설정, 공시 및 모니터링 강화
	- 투자자의 수탁자 의무 및 관리 규칙 명확화
	- ESG 시장 조사 및 평가의 가용성, 무결성 및 투명성을 개선
	- 그린워싱 해결을 위한 감독 권한 평가
	- EU금융시스템의 진척 측정을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
글로벌 협력 촉진	- 국제 포럼내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및 표준을 개발
	- 지속가능금융 국제 플랫폼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지배구조를 강화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전환 노력 지원

10)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Finance Strategy(2021.7)", 전계 보고서에서 재인용.

- EU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을 통해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EU회원국들의 기후행동을 촉구하였다. EU는 EU조약에 의해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EU의 중요가치로 설정하였으며, 2019.12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2020.3월 유럽기후법을 제안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EU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금융 로드맵¹¹⁾

- **(유럽기후법)** 2021. 6월 승인된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 **(Fit-for-55)** EU는 후속으로 Fit-for-55 법안패키지를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였다. Fit-for-55 법안패키지는 탈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의 조건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관련 산업 및 회원국의 경쟁력 확보를 제시하였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인위적인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11) Intereconomics, "Green Finance in Europe - Strategy, Regulation and Instrument", 전계 보고서에서 재인용.

가격 결정	목표 설정	규정 강화
1.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 강화 2.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신설 3.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5. 노력분담규정 개정 6.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 규정 개정 7.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8.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9. 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 규제 기준 강화 10. 대체연료 인프라규정 개정 11. 항공운송 연료 기준 마련 12. 해상운송 연료 기준 마련
지원 대책		
13.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그림 5] Fit for 55 법안 패키지 주요 내용¹²⁾

2. 기술 발전 동향

가. SRI 채권¹³⁾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을 지칭한다. 또한 발행자와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ESG 채권, Thematic 채권, 사회공헌 채권이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녹색채권(Green bond, 그린본드)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사회적채권(Social Bond, 소셜본드)은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12) European Commission, “The Fit for 55 Package : At a glance”, 전계 보고서에서 재인용.

13)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소개, <https://sribond.krx.co.kr/contents/01/01010000/SRI01010000.jsp>

[표 7] SRI 채권의 발전 연혁

연도	내용
1972	유엔환경계획(UNEP : UN Environment Program) 발족
1991	유엔환경계획(UNEP) 금융 이니셔티브(Finance Initiative) 발표
2007	유럽투자은행(EIB : European Investment Bank) 녹색채권 세계 최초 발행
2008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채권 최초 발행
2013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물(해외발행) 녹색채권 최초 발행(미화 5억달러)
2014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발표 (이후 해당 원칙에서 사회적채권원칙,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분리)
2015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17개) 제시
2018	산업은행, 국내발행(등록기준, 이하 같음) 녹색채권 최초 발행(3,000억원) 산업은행, 국내발행 사회적채권 최초 발행(3,0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국내발행 지속가능채권 최초 발행(3,500억원)
2019	대한민국 정부, 한국물(외평채) 녹색 및 지속가능 국채 발행(미화 5억불),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제정
2020	6월 : 한국거래소(KRX)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오픈 8월 : 녹색금융TF 발족(금융위 · 환경부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자문단 등으로 구성) 12월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제정(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공동)
2021	4월 :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상장잔액 100조원 돌파 8월 : 대한민국 정부, ESG 인프라 확충방안 발표 10월 : 대한민국 정부, 아시아 정부 최초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7억 유로) 12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환경부)

- SRI 채권의 형식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ICMA)에서 발표한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s, SBP),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SBG), 국제기후기구(Climate Bond Initiative, CBI)에서 발표한 기후채권기준(The Climate Bond Standards, CBS) 등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국내는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 최초 안내서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2020년 12월 마련되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ICMA의 녹색채권 원칙과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하다.

[표 8] 녹색채권 관리체계(Green Bond Framework, GBF)의 주요 내용¹⁴⁾

구분	내 용
녹색채권 발행개요	관리체계에 녹색채권 발행의 목적, 발행자의 녹색경영 전략과 환경개선 목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조달자금의 사용처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녹색프로젝트는 아래의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투·융자나 연구개발비, 인력교육비, 모니터링 비용 등의 부수비용도 녹색프로젝트 자금사용처에 포함된다.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천연자원 보전 ④ 생물다양성 보전 ⑤ 오염 방지·관리 ⑥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녹색프로젝트는 6가지 환경목표 중 적어도 하나이상에 기여해야 하며 다른 목표와의 상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조치(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노동인권과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문을 적용하여 환경 외적인 요소를 위반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발행자는 GBF, 투자설명서 등 채권발행 관련 제반 서류를 통해 환경개선 목표와 조달자금 사용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해당 녹색프로젝트의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이를 계량화해야 한다.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녹색채권 발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GBF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① 환경개선 목표 ②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녹색프로젝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③ 해당 프로젝트 관련 잠재적인 환경·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된 절차, 관련 적격성 판단 기준 및 배제 기준
조달자금의 관리	발행자는 녹색채권 발행자금이 녹색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해야 한다. 녹색채권 순조달액(Net proceeds) 또는 그 상당액을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추적가능한 적절한 방법(별도의 계좌 또는 포트폴리오 마련, 가상의 방식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내부 절차에 따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자는 녹색채권 상환 시점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금과 미사용자금의 총액이 조달자금과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사용 자금이 발생할 경우, 발행자는 GBF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미사용 자금을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후보고	발행자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발행자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14)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0.

나. 지속가능분류체계¹⁵⁾

- EU의 2018. 3월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발표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그린딜, 유럽기후법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후, 2020. 7월 녹색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 발표, 2021. 3월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 등을 입법하였다.
- EU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친환경 경제로 금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분류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고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별하는 수단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명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 기업들은 분류체계를 근거로 경제활동의 친환경 여부를 결정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관련 금융상품을 설계하는데 공통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5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TEG(Technical Expert Group) 등의 자문을 거쳐 2020.6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였다.
- EU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에 따른 상세한 선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위임법률(Delegated Act)을 제정하였으며, EU의회는 환경목표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선별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2021년 6월 제정, 2022년 1월 시행) 상세기준을 위임법률로 제정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EU 공통기준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9개 분야, 88개 활동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13개 분야, 95개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금융의 투자기준으로 활용한다. EU집행위원회는 2022.2월, Climate Delegated Act에서 배제되었던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등을 분류에 포함하는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Delegated Act)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안은 EU 의회·이사회 검토를 거쳐 승인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2022년 2월 사회적 분류체계, 소셜 텍소노미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소셜 텍소노미는 수직적 차원(vertical dimension)과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으로 구분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이원화한 것이다. 수직적 차원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상품과 서비스가 적절한 삶의 기준(adequate living standard)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가 기준이며,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존중 또는 보호받았는지'가 기준이다. 소셜 텍소노미는 EU 집행위원회의 채택 전 단계이다.¹⁶⁾

15) 법무법인 광장, EU의 ESG 규제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 장명화,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2022; European Commission, EU Taxonomy: Commission welcomes the result of today's vote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omplementary Delegated Act, 2022. 7. 6.

16) 법무법인 지평, "[ESG] EU, 소셜 텍소노미 초안 보고서 발표", 2021. 7. 20.; 임팩트온, "EU 집행위, 소셜 텍소노미 '의도적' 방치?", 2022. 6. 7.

[표 9] EU 녹색분류체계 기준

환경목표	판단조건
①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②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Substantial Contribution)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Minimum Social Safeguards) ④ 기술선별기준 (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

[표 10] EU 소셜 텍소노미의 구조

수직적 차원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접근권 개선	물, 음식, 주거, 보건, 교육 등
	기본적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 개선	교통, 통신과 인터넷, 청정 에너지, 금융의 포용성, 폐기물 관리 등
수평적 차원	양질의 일자리 보장	사회적 대화, 차별금지 및 평등,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 조건, 안전보건, 숙련 및 평생교육, 사회보장, 가치사슬 내의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
	소비자 이익 증진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 소비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책임있는 마케팅 관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평등하고 포용적인 성장, 주거와 생활 지원,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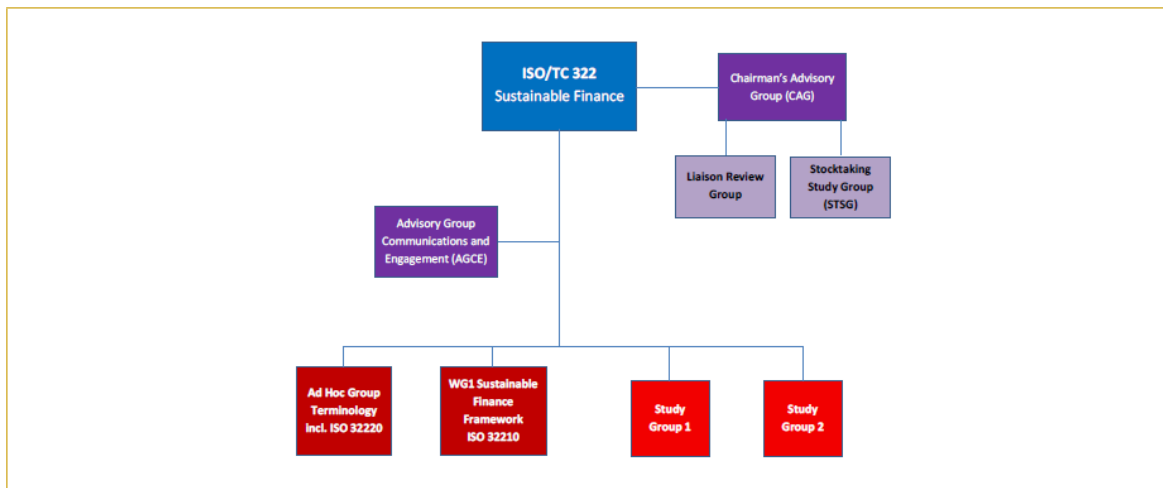
○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하여 EU의 지속가능금융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별도의 지속가능금융투자 로드맵을 2021년 10월 발표하였으며, EU의 분류체계와 유사한 영국 버전의 별도 분류체계를 2022년 말 시행 예정이다. 그 외에 중국, 일본, 캐나다도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만들고 있다. ISO도 ISO 14030-3을 통해 분류체계를 개발 중이다.

○ ISO 또한 ISO 14030 시리즈를 통해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ISO 14030-1:2021 환경 성과 평가는 녹색 채권을 위한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다.

1. 지속가능금융 분야 표준화 활동 현황

가. TC 조직 구성

- TC 322는 2018년 신설되었으며, 경제 활동 자금 조달에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행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 고려 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분야의 표준화를 수행한다. TC 322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TC 68, 환경 관리 분야의 TC 207, 자산 관리 분야의 TC 251, 조직 거버넌스 분야의 TC 309와 긴밀히 협력한다.
- ISO/TC 322는 2020년 3월 현재 의장 자문단(Chair's Advisory Group, CAG)과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맡고 있는 WG(Working Group) 1, 용어를 맡고 있는 Ad Hoc 그룹, 향후 운영 예정인 스터디 그룹과 참여 자문 그룹(Advisory Group 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AGCE)로 구성되었다.



[그림 6] TC 322 구조 (2020.3.1. 기준)

- 현재는 기존의 CAG 외에 Ad Hoc 그룹이 전신인 용어 정의를 맡고 있는 WG 2, 지속가능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맡고 있는 WG 3이 추가되었으며 합동 WG인 JWG(Joining Working Group) ISO 14100, AHG(Ad Hoc Group) 2 미래 표준, TAG(Technical Advisory Group) 지속가능 핀테크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나. TC/SC 의장, 간사, 컨비너 등 현황

- 사무국 : BSI(영국)
- 위원회 관리자 : Mike Henigan
- 의장 (2024 말까지 임기) : Mr. Joseph Noss
-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Technical Programme Manager, TPM) : Mr. Stefan Marinkovic
- ISO 편집 관리자(Editorial Manager, EM) : Ms. Niclola Perou

[표 11] TC 구성

TC 내 구성	주제	컨비너	국가
AGCE	커뮤니케이션과 참여	Dr. Ana Nacvalovaite	영국
AHG2	미래 표준 개발	Dr. Frantz Knecht	미국
CAG	의장 자문 그룹		
TAG 1	지속가능한 핀테크	Mr. Pedro Baiz	영국
WG 1	지속가능금융 체계	Mr. Hayden Morgan	영국
WG 2	용어정의	Ms. Bolu Wang	중국
WG 3	지속가능금융 상품과 서비스	Dr. Frantz Knecht	미국

다. 한국 국제표준 전문가 참여현황

[표 12] 한국 전문가 참여현황

성명	역할	소속
배진석	위원회 구성원	국가기술표준원
최요한	위원회 구성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윤나	위원회 구성원	BNP 파리바 증권
장윤제	위원회 구성원	법무법인 세종
이무혁	위원회 구성원	우리자산운용
임철수	위원회 구성원	국립환경과학원
설기환	위원회 구성원	한국금융연수원

2. 분야별 표준개발 현황

가. 해당 TC/SC 주요 표준 개발 현황

- ISO/TC 322의 역할은 표준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고 안내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이 개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속가능금융 활동을 정의하고 안내하여 기존 ISO/TC의 활동을 보완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관된 글로벌 원칙과 용어를 홍보한다.
- 표준은 부문 관련 성과의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춰 격차를 식별하고, 메트릭을 정규화하고,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조화된 ISO 표준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속가능성, 특히 SDG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되며 상당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ISO/TC 322 작업의 구체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시장 혼란과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공통 용어, 원칙 및 표준을 개발
 - “지속가능성 위장(sustainability-washing)”을 방지하고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신뢰성과 무결성(따라서 확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의 명확화
 - 거래비용을 줄여 국경 간 지속가능한 자본 흐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일련의 표준의 개발
 -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 그리고 ISO 26000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제3자 검증 및 ESG 평가와 같은 관련 서비스의 혁신 및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활동의 명확한 정의
 - 금융 기관(은행, 투자자 및 보험사 포함)이 ESG 고려 사항을 투자 및 금융 관행에 더 잘 통합하도록 안내하는 지속가능금융 원칙 및 표준 제시
 - 지속가능한 금융 흐름과 지속가능금융활동 및 금융기관, 시장의 ESG 성과를 측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 표준화
 - 정부, 규제 기관 및 시장이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을 시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금융 표준 제공
- ISO/TC 322 WG 2의 용어 정의는 현재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국문화가 완료되었다.

- ISO/TC 322의 WG1은 ISO/DIS 32210 지속가능금융의 원칙과 가이드언스를 개발하였으며, ISO/DIS 32210은 TC를 통과하여 2022년 1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 ISO/DIS 32210 지속가능금융 원칙과 가이드언스는 지속가능금융의 원칙으로 거버넌스와 문화, 전략 부합화와 목표, 위험과 기회 관리 및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모니터링과 측정 및 지표, 보고와 투명성 및 검증, 지속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표 13] ISO/FDIS 32210 주요 내용(목차)

범위		
기준 참조		
용어 및 정의		
지속가능금융의 원칙	일반	
	거버넌스와 문화	
	전략 조정 및 목표	
	위험 및 기회 관리와 영향의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모니터링, 측정 및 측정 지표	
	보고, 투명성 및 보장	
	지속적 개선 및 향상	
지속가능금융의 이행	일반	
	거버넌스와 문화	지배기구의 책임
		체계적 검토
		내부 성과 관리 및 보상
	전략 조정 및 목표	일반
		지속가능성 선언 또는 정책
		벤치마킹 및 차이 분석
		전환 계획 및 전략 이행 계획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위험 및 기회 관리와 영향의 평가	고객, 자산 및 포트폴리오 수준의 위험 및 영향 평가
		시나리오 분석
		다른 원리와의 정렬
	이해관계자 참여	
	모니터링, 측정 및 측정 지표	일반
		자산 관리 계획
	보고, 투명성 및 검증	
	지속적 개선 및 향상	
참고문헌		

나. 한국 주도 국제표준 개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 TC/SC 주요 이슈 및 동향

- ISO/TC 322의 WG1은 ISO/DIS 32210 지속가능금융의 원칙과 가이드스를 개발하였으며, ISO/DIS 32210은 TC를 통과하여 2022년 1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 WG2는 현재 사회적 투자 토픽을 다루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용어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였다.
- WG3은 WD1을 개발 중이다. JWG는 ISO 14001 녹색금융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자산, 활동의 환경 분야 가이드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프로젝트 및 자산, 활동의 환경적 성과 및 영향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다. AHG는 WG3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가능한 PE/VC 펀드의 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 TAG1은 로드맵과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블록체인과 탄소/배출량의 결합을 인식하였다.

IV

조직의 지배구조 분야국가표준 대응 활동 현황

1. COSD 조직 소개

가. COSD 조직표

○ 1본부, 7센터, 3팀 1추진단, 72명



[그림 2] 한국표준협회 표준화 업무 관련 조직

○ 산업표준 개발 인력 현황: 표준R&D센터(센터장 1명, 연구원 16명)

- 표준R&D센터는 직제규정에 따라 ① 표준개발협력기관 관련 업무, ② 데이터 상호운용성 센터 운영, ③ 표준화 관련 기초 자료 개발 및 관리, ④ 표준관련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과제 수행, ⑤ 표준화 로드맵 개발, ⑥ 기술분야별 표준화 정책 발굴 및 전략 수립, ⑦ 기술분야별 표준화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진흥 활동, ⑧ 국제표준화 전문위원회(ISO/JTC1 등) 분야별 간사 및 단체표준 등록 업무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대표협력기관 현황

○ 기관 현황

-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DT센터)
- 대표자: 강명수
- 설립목적: 산업표준,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교육

○ 기관 역할

- 협회의 표준화 조직 운영 및 산업표준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①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협의체 구성원의 의견 조율, ③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역할을 수행함
-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분야에 대하여 ①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 계획의 수립, ② 분야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③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정 및 개정 의뢰, ④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⑤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⑥ 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지정분야

[표 11] 한국표준협회 지정분야

전문위원회	TC		TC Title
경영시스템	PC	308	관리 연속성 - 일반 용어 및 모델
	TC	176	품질경영시스템
	TC	262	리스크 경영
	TC	286	협업적 비즈니스 관계관리
공공서비스	TC	272	법과학
	TC	292	보안 및 회복력
	TC	309	조직 거버넌스
	TC	323	순환경제
관광서비스	TC	228	관광서비스
사업서비스	TC	267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시설관리)
	TC	251	자산관리
사회서비스	PC	311	취약소비자
	TC	304	보건행정
	TC	314	고령화 사회
소비자서비스	PC	303	소비자 보증 및 보증에 관한 지침
	TC	225	시장 조사 및 사회연구
	TC	312	서비스 우수성
	TC	324	공유경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TC 34/SC 17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안전보건서비스	TC	283	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인적자원서비스	TC	232	교육훈련서비스
	TC	260	인적자원관리
지식서비스	TC	222	재무설계서비스
	TC	322	지속가능 금융
프로젝트경영	TC	258	프로젝트 경영시스템
혁신경영	TC	279	혁신경영
나노기술	TC	229	나노기술
	TC(IEC)	113	전기 기술 제품 및 시스템을 위한 나노 기술
인공지능(AI)	JTC 1/SC 42		인공지능

○ 과거 연구수행실적

[표 12] 한국표준협회 과거 연구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천원)	비고 (주관/참여)
1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서비스 표준 개발	22.07~계속	420,000	참여
2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22.07~계속	447,940	주관
3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감염위험이 높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재택인프라 지원 지침	22.07~계속	540,000	주관
4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22.04~계속	570,000	참여
5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메타버스 교육 훈련 서비스를 위한 가상 세계와 아바타 데이터 모델	22.04~계속	570,000	참여
6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표준-인증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표준 기반 조성	21.04~계속	1,500,000	주관
7	출연금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18.07.~18.12. 19.11.~20.03. 20.10.~21.03.	100,000 100,000 95,000	주관
8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가기술표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표준기반 구축사업	19.04.~22.06	396,250	주관
9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2018년 R&D 표준연계, 표준화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18.06~19.05	750,000	주관
10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나노 바이오 기반 진단분석 치료기기 및 제품의 성능평가 표준화	19.04~계속	369,000	참여
11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기반조성	17.04~19.12	550,000	주관
12	학술연구용역 (국가기술표준원)	4차 산업혁명 정책기반 표준정책 연계강화 및 상용화 지원	19.04~계속	481,000	주관
13	학술연구용역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 대응역량 강화 기반조성	17.06~17.12	266,181	주관
14	학술연구용역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효율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17.05~17.12	123,998	참여
15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표준전문가 직무요건 가이드 및 대학원 커리큘럼 국제공동개발	17.04~19.12	795,000	주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천원)	비고 (주관/참여)
16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국가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표준수요발굴	16.10~17.09	100,000	주관
17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지역표준화 활동강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기반 마련	16.06~19.05	780,000	주관
18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부/국표원)	국제표준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ISO와 IEC 대응전략 기반조성	15.06~18.05	600,000	주관
19	학술연구용역 (국가기술표준원)	3D데이터 정보의 국제기술 표준화 및 산업화 기반조성	15.06~18.05	840,000	주관

2.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 지식서비스 전문위원회는 TC222(재무설계서비스)와 함께 TC322에 대하여 부합화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부합화를 진행함.

- ISO/TR 32220:2021 (Sustainable finance — Basic concepts and key initiatives) 현재 법규적인 정의가 없는 지속가능금융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2021년도 중 위원회 내 TF 구성하여 부합화 표준 제정안 개발 완료. 2022년도 중 위원회 검토 후 예고고시 등록 완료

○ TC322의 개발 진행 표준에 대하여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향후 부합화 표준 개발을 추진을 사전 검토

- ISO 32210(Framework for sustainable finance: Principles and guidance) 출판 후 부합화 추진 검토

3. 2022년 COSD 제안 국가표준 리스트

[표 13] 지속가능금융 분야 관련 국가 표준

TC	국제표준	표준명	국가표준 부합화
322	ISO/TR 32220:2021	Sustainable finance — Basic concepts and key initiatives	예고고시 등록 완료

4. 2022년 COSD 활동성과

○ TC322의 대응위원회인 지식서비스 전문위원회의 활동 전문가는 10명으로 연 3회 내외의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개발 활동을 대응하고 지원함.

- 전문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음.

No	성명	소 속	직위	비고
1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대표위원
2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위원	2022년 신규위촉
3	박천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팀장	2022년 신규위촉
4	설기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5	오효정	법률사무소리버티	변호사	2022년 신규위촉
6	이동기	EY한영회계법인	이사	
7	이무혁	우리자산운용	팀장	
8	이정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본부장	2022년 신규위촉
9	이창수	강릉원주대학교 (국가기술표준원)	교수	2022년 신규위촉
10	임새훈	(주)에프앤가이드	ESG센터장	2022년 신규위촉
11	장윤제	법무법인세종	전문위원/ ESG연구소장	
12	하윤나	비엔피파리바증권	차장	
13	한윤택	CREDITAGRICOLE증권	본부장	

○ TC322 대응활동 수행

- TC222와 함께 TC322 관련 국제표준 문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전문가를 지정하고 의견 수렴,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기타 의견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여 제출

Technical Committee Trend Report

Information
Service
정보서비스

TC동향보고서
TC 322